

시연施連칼럼

조선 백자白磁의 미美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우공파회장

권오신(좌우공파회장, 칼럼니스트) 우리 고고미술사(考古美術史)를 집대성한 고고학자(考古學者) 최순우(崔淳雨, 1916~1984) 선생은 “한국의 폭 넓은 흰 빛 세계와 형언하기 힘든 부정형(不定形)의 흰이 그려주는 무심한 아름다움을 모르고서는 한국의 본바탕을 체득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도자의 흰 빛 세계에는 달항아리가 중심에 있다. 달항아리는 조선시대(朝鮮時代)에서도 문화적(文化的)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17, 18세기 궁중 그릇을 주로 구웠던 경기도 광주 금사리와 분원 가마에서 만들어진 백자(白磁)를 말한다.

대부분 높이가 40cm 이상이어서 학명은 백자대호(白磁大壺)다.

원에 가까운 형태가 둥근 달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닥에 닿는 굽이 입지름 보다 작아 만월의 달이 동등할 때 있는 것 같아서 “달항아리”라고 불려진다. 몸 크기가 커서 불에 넣기 전 두 개를 따로 만들어 맞붙인다.

중간에 이은 부분이 느껴지도록 정교하게 다듬지 않는 게 도공의 마음이다. 심하게 이지러진 것도 있어 처음 볼 때는 태자(太子)처럼 보지만 기교에 집착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깊은 맛을 더 낸다.

달항아리의 비밀은 불룩한 허리 부분 이음매에 있다. 그때의 기술로는 높이가 40cm가 넘는 대호는 물레로 뽑아 올릴 수 없었다. 젖은 태토(胎土)가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이다. 접력이 좋은 흙을 쓰면 되지만 달 항아리만 갖는 순백의 깨알이 나오지 않는다. 불 속에 구워내도 얼음 같은 하얀 색깔이다.

미끈함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맛이 멋으로 녹아 있다. 유희준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代表的) 미(美)라고 하면 신라(新羅)의 금관(金冠)과 고려청자(高麗靑瓷), 조선(朝鮮)의 달항아리를 들었다. 달항아리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체성까지 보여준다.

조선(朝鮮) 막사밭의 미(美)는 바다 건너 왜인(倭人)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았다. 평범한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먼저 발견한 일본인들을 결코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조선 강토와 도공이 입은 피해는 너무 컸다.

일본인들이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도자기 전쟁으로 부른 원인이 된다. 당시 차(茶)음이 열풍처럼 번졌던 일본 상류사회는 자신들이 만들어 낸 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조선 도자기(陶磁器)에 눈독을 들이고 조선(朝鮮) 도공(陶工)들을 타치는 대로 본토로 끌고 갔다.

임란(壬亂)을 전후해서 왜인(倭人)들이 가져

간 막사밭은 일본 국보(國寶)에 이름을 올리기가 지 했으나 조선(朝鮮)에서는 밥, 국, 막걸리를 마신 질박(質朴)한 잡기(雜器)들이었을 뿐이다. 달항아리가 내뿜는 예술(藝術) 세계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조선(朝鮮)의 어느 산에서나 캐온 흙을 빚어 훌륭한 물레로 돌리다보니 사발 형태가 거칠고 굽도 평형을 잃은 부정형(不定形)미를 갖추었지만 평범한 속에 감추어진 미(美)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빛났다. 흙이 가마에 들어가 1500도의 열을 받으면 옥(玉)으로 변한다. 조선백자는 그 시대의 정신과 취향을 반영했으며 백자의 생명력은 흰빛에서 나온다.

15세기 성종 시대는 맑은 흰빛(正白色)이었으나 16세기 중종 때에 이르러 따뜻하게 보이는 상아(象牙)빛 색감으로 세련되지만 입진·호란 두 난리를 겪는 17세기(仁祖)것은 회백색(灰白色)으로 변하고 몸체 질감도 거칠어 졌다.

18세기 영조(英祖) 어간에 이르면 백자(白磁)의 예술미(藝術美)는 정점에 올라가 가을 송이의 속살이나 여인의 허벅지 살처럼 설백색(雪白)이, 정조 시대로 넘어가면 가슴에 품고 싶고 어루만지고 싶은 유백색(乳白色)의 우유빛 백자(分院里窯)가 나와 절정에 달한다. 19세기 왕조의 말기에 들어서면 가마에서 꽃 피웠으며 광주(廣州) 금사리요(金沙里窯)와 분원리요(分院里窯)가 그 산실이다.

영조는 1750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전에는 도자기 그림을 석간주(鐵砂)로 그렸다 하는데 요즈음은 청료(靑料)로 쓴다니 매우 사치스런 풍조다. 이후부터는 용 항아리 외에는 금한다.’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높은 회화성을 볼 수 있게 한 18세기는 조선시대 후기문화의 전성기였다. 이 시기 조선(朝鮮)은 농업을 비롯한 물산이 풍부해졌고 상평통보(常平通寶)로 통하는 화폐의 유통경로가 전국으로 확대,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함으로써 가능했다.

백자 달항아리는 국보로 지정된 것이 두 점, 보물로 지정된 5점, 대영박물관에 전시된 한 점 등 20여 점이 국내외에 전해지고 있다. 연전 일본에서 찾은 오사카 어느 미술관은 달 항아리와 막사밭, 고려청자 등 우리 유물 몇 점을 전시하고 한 사람 입장료로 천 엔을 남게 받았다.

조선(朝鮮)의 도자기는 수수한 차림의 어머니처럼 품고 싶지만 일본의 도자기는 기생 같고 중국 것은 경극 배우처럼 느껴져 금방 싫어진다고 했다.

安東權氏尹公派宗會가 지난해 5월 안동시 북후면 잣밭골 세천(世傳)에 중건한 원원재사(燕院齋舍) 첨모당 기둥을 비롯 동서재의 형태미가 조선 건축 문화의 백미였던 배흘림(달항아리처럼 가운데가 불룩 튀어나옴)기둥과 연화문 주초석, 골기와지붕에 얹은 취미 등 조선시대 미적 감각을 살린 건축으로 인해 미적 화제가 되고 고건축의 견학 실재가 됐다.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24>



권갑현 편집위원장

〈강좌문집〉은 강좌(江左) 권만(權萬, 1688~1749) 공의 시문집으로 10권 5책의 필서체 목활자본이다.

공은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 26세로 북야공파(僕射公派)이다. 자(字)는 일보(一甫), 호가 강좌(江左)이다. 부친은 조봉대부(朝奉大夫)를 지낸 서암(西巖) 권두경(權斗經, 1668~1717)으로 장설재(蒼雪齋) 권두경(權斗經, 1654~1725)의 셋째아우이다.

강좌공은 밀암(密庵) 이재(李裁, 1657~1730)와 높은(誦隱) 이광정(李光庭, 1674~1756)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제산(齋山) 김성탁(金聖鐸, 1684~1747),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 등과 교유하였다. 1721년 식년시(式年試)에 유학(幼學)으로 생원에 임격하였으며, 1725년 통덕랑(通德郎)으로서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였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변란에 정자(正字)로서 창의(倡義)하였다. 1746년에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하고 가을에 병조좌랑에 제수되고, 이어 성균관 직강(直講)을 거쳐 병조좌랑에 이르렀다. 가장(家藏)하고 있던 충재공(沖齋公) 권벌(權穰, 1478~1548)의 수진본(袖珍本) 〈근사록(近思錄)〉을 진강(奉進)하였다. 소대(召對)하는 자리에서 〈근사록〉과 〈주역(周易)〉을 강하였다. 1747년 여름에 양산군수(梁山郡守)가 되었다.

1788년에 양산의 충현사(忠賢祠)에 제향되었으며 1791년에 무신년 창의(倡義)의 공으로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다.

해좌(海左) 정범조(丁範祖, 1723~1801)가 지은 행장(行狀)과 문집 서문을 보면 〈강좌문집〉은 1800년에 증손 권신도(權信度, 1763~1873) 등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뒤 간행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강좌문집〉의 본집은 10권 5책으로, 전체 목차나 권별 목록이 없으며, 권두에 정범조(丁範祖)가 1800년에 쓴 서문이 실려 있다.

권1~4는 시(詩)로서 모두 443제(題)인데, 저작 시기에 따라 편집되어 있다.

강좌문집(江左文集)

권5~6에는 서(書) 66편, 서(序) 4편, 기(記) 2편, 발(跋) 8편, 전(傳) 2편, 명(銘) 2편이 실려 있다. 이 중에서 이재(李裁)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퇴계언행록(退溪言行錄)〉의 산정(刪定) 문제와 백부 권두경(權斗經)의 〈장설재집(蒼雪齋集)〉 산정에 관해 말하고 있다.

권7에는 송(頌) 1편, 전(箋) 1편, 장(狀) 2편, 잡저(雜著) 6편이 실려 있다. 이 중 전문(箋文)은 1746년 충재(沖齋) 권벌(權穰)의 수진본(袖珍本) 〈근사록(近思錄)〉을 임금께 올릴 때 같이 올린 것이다. 잡저 가운데 〈역설(易說)〉은 장편으로서 〈괘명설(卦名說)〉과 〈단전(象傳)〉으로 나누어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권8에는 설(說) 4편, 책(策) 1편, 상량문(上樑文) 9편, 애사(哀辭) 6편이 실려 있다. 이 중 〈홍범책(洪範策)〉에서는, 탕평책이 동방의 기자(箕子)에서 비롯된 것임을 거론하며 구주(九州)의 원리를 체득하고 실현할 것을 청하고, 아울러 태학(太學)과 향교에 기자(箕子)의 사당을 세워서 제사 지낼 것을 청하였다.

권9에는 제문, 행장, 묘도문(墓道文)이 실려 있다. 묘도문에는 부친 권두경(權斗經)의 묘표(墓表)도 있다.

권10은 부록이다. 해좌(海左) 정범조(丁範祖)가 지은 공의 행장을 비롯하여 교유했던 분들이 지은 17편의 만사(輓詞), 8편의 제문을 비롯해서, 공이 양산군수로 재직할 때의 치적을 기려 세운 양산 충렬사(忠烈祠)의 봉안제문(奉安祭文)과 통도사(通度寺) 마애비(磨崖碑)가 실려 있다.

〈강좌문집〉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서 구두점 붙은 원문 이미지와 컴퓨터 입력 원문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문집 해제도 볼 수 있다.

다음은 공의 나이 13세에 강가에서 어부가 고기잡는 것을 보고 지은 것으로 제목은 〈江上觀漁(강상관어)〉이다.

肯識人間有畫圖(공식인간유화도) 인간 세상에 그림이 있는 줄을 어찌 알겠는가

다음은 아이가 소를 칠 때의 장면을 읊은 것으로 제목은 〈牧牛兒(목우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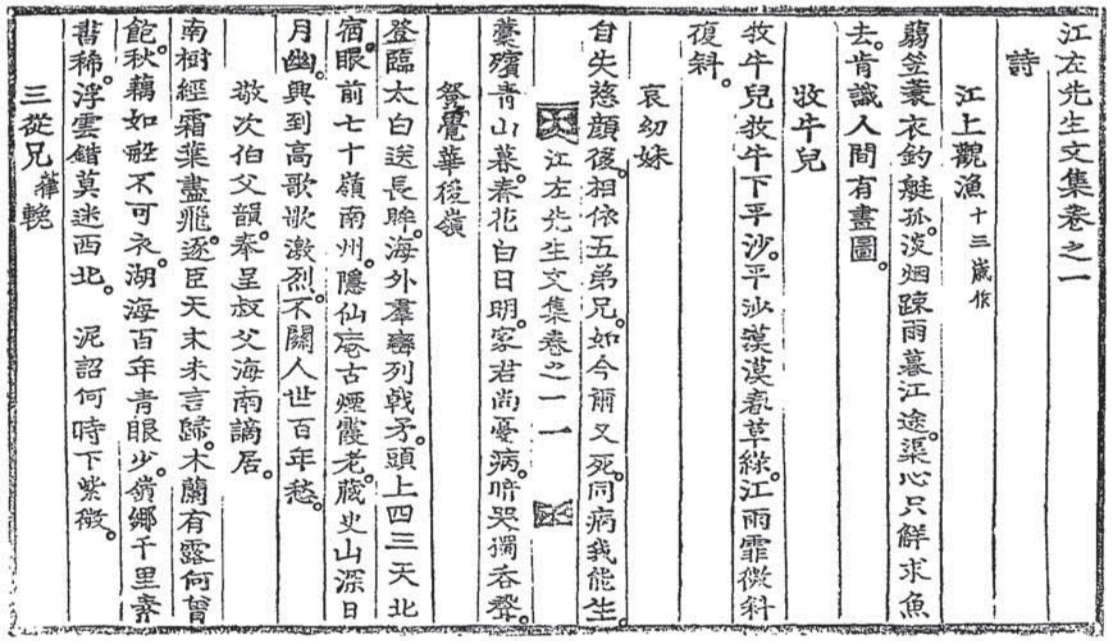
牧牛兒牧牛下平沙(목우아목우하평사) 소치는 아이 소 먹이다가 모래벌로 내려가니 平沙漠漠春草綠(평사막막춘초록) 모래벌은 끝없이 펼쳐져있고 봄풀은 새파랗데 江雨霏微斜復斜(강우비미사부사) 강물에 내리는 비 흩날리며 기울고 또 기울네

이 두 수는 공이 열 살 이전에 지은 것으로 사물을 범상치 않게 관찰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세 번째 시는 어린 누이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 제목은 〈哀幼妹(애유매)〉이다.

自失慈顏後(자실자안후) 어머니를 여의고난 뒤로부터 相依五弟兄(상이오제형) 다섯 형제 서로 의지하였네 如今爾又死(어금이우사) 지금 너 또한 세상 떠났는데 同病我能生(동병我能生) 같은 병이나 나는 살아났네 薰殯青山暮(공빈청산모) 저물녘에 산에 장사 지내니 春空白日明(춘화백일명) 대낮엔 봄꽃 활짝 피었었네 家君尙憂病(가군상우병) 아버지는 걱정스럽고 괴로워 啼哭獨吞聲(암곡독탄성) 울래 울며 울로 소리 삼키네

공의 모친 풍양조씨(豐壤趙氏)는 1697년 3월 24일에 33세로 졸하였다. 공은 4남1녀 형제 중의 맏이로서 동생들과 서로 의지해 살았다. 공이 열 살 되던 해 꽃피는 어느 봄날 셋째인 여동생이 서너 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은 것이다. 공도 동생과 같은 병에 걸렸으나 살아났다. 부친은 걱정하며 괴로워하고 남몰래 울어 목이 메었다고 하였다.



태사문학 2집 출판기념회

태사문학 2집 출판기념회가 4월 18일 11시에 권해욱 회장, 권필원 태사문학회 대표, 권건중 상임부회장, 권혁모 태사문학회 자문위원, 권순자 태사문학회 편집국장, 권오상 사무총장, 권행완 편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종회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태사문학회에서 준비한 케익을 자르며 2집 출간을 축하했다. 권해욱 회장은 태사문학회가 작년에 출범하자마자 권필원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께서 장간호를 발간했는데 또 다시 2집이 나왔다고 하니 역시 시조 태사공의 후예답다. 회원 여러분들이 문학적으로 워낙 명망 있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권필원 대표를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여 소중한 책자를 발간하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더 많은 죽친들이 태사문학회에 참여하여 지금보다도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필원 대표는 제1집은 35명이 기고하였는데 2집에는 43명이 참여했다. 또 1집과 2집을 발간하니 여러분의 후원금이 담겨 있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3집은 재정적으로 한결 수월하게 발간할 것 같다. 내년에는 회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2년 내로 1박 2일 세미나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종회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사문학 2집에는 총 43명의 작품이 실려 있다. 그 중 권수복 시인의 '우리는'이라는 시는 그리움으로 요동치는 깊은 마음에서 속울음을 길어 올렸다고 말한다.

우리는

먼발치에서 마음 벽 하나 사이에 두고

그리움 닿았나 싶은 날 요동하는 심장

다가갈 수 없음을 가득한 설움 바람결에 흔들리는 눈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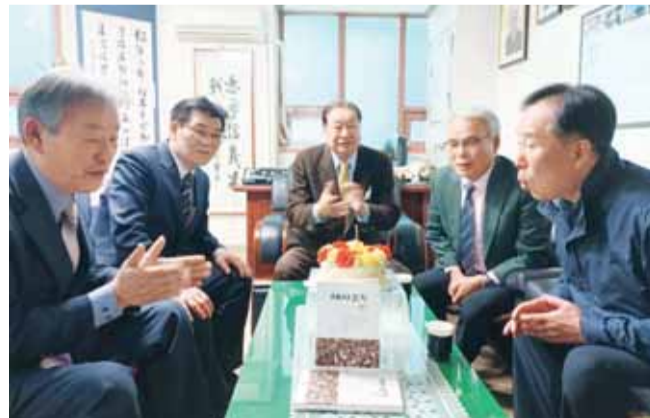
애뜻함에 아위어 가도 허물 수 없는 담장을 꺼안은 채 속울음 깊다



권오상 사무총장, 권건중 상임부회장, 권필원 대표, 권해욱 회장, 권혁모 자문위원, 권순자 편집국장(왼쪽부터)

안동권문의 문사들의 서사를 꾸미듯 한 장 한 장 편집한 권필원 대표와 권혁모 자문위원, 권순자 편집국장은 2집에 실린 작품들을 편집하면서 후기를 남겼다.

권필원 대표는 “수많은 관문을 통과하여야만 한 생애를 마감 하듯이 첫 문집을 제작하여 그것을 기본으로 둘째 문집을 완성하였습니다. 원고를 보내 주신 종친 문사님들께 감사의 말 전합니다. 편집위원들의 조그마한 정성이 태사문학회의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큰 정성으로 보내 주신 연회비로 문집을 제작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권혁모 자문위원은 “지난 해 8월에는 딸이 살고 있는 싱가포르를 돌아왔다. 그곳에서 뜨는 달과 별과, 이런 의미 밖의 정물들이 예사이지 않았듯이, 먼 한국의 은우들이 운동 그 안에 머물고 있듯이, 다시 『태사문학』 2집을 발간하며 안동권씨라는 그늘막의 아늑함에 젖어 든다. 지면으로 마주한 죽친들의 작품 앞에 오래 서성이게 한다.”

권순자 편집국장은 “거대한 태사의 줄기를 이어 오는 죽친의 자애와 문학의 서사가 『태사문학』 2집 글마다 스며들어 읽는 기쁨을 느낍니다. 문학 향기가 가득한 책 『태사문학』 2집은 죽친의 유대감과 공감의 영역을 넓혀 가는 데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라고.